

文化藝術 발전과 大學教育

金 文 煥

(서울대 美學科)

1

급격하게 진화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들과 정보 기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文化 분야에서 생겨나는 자신들의 필요들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기술 공학에 의해 지배되는 문명 속에서 文化的 行動은 교육 사업과 과학적 노력에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이 점증되어 왔다. 문화적 행동의 기능은 곧 發展이 결국 精神에 기여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개인들이 엘리트 집단들 간의 상호 교류를 증진시킨다거나 전문가들이 이웃하는 문명들이 지닌 풍요성과 수월성을 서로 상찬한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 그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 생활에 접근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유토록 해야 한다. 요컨대 文化的 發展은 이제 技術工學的 및 科學的 進歩와 그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 그것은 교육과 과학적 활동을 위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발전을 위한 전반적 정책들 안에서 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

1967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모나코에서 개최된 문화 정책에 관한 기초적 연구를 위

한 세계 회의¹⁾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는 드디어 앞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발상을 발전시키려는 포부 아래 1989년에는 문화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문화 정책(cultural policy)이란 주어진 시간에 그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物的·人的 資源을 최대한으로 이용함으로써 일정한 문화적 필요들을 충족시킬 것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그것은 한 사회 내의 의식적이고 신중한 관례들은 물론 행동 또는 심지어 행동의 결여까지를 포함한 총합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서는 문화적 발전을 위한 일정한 기준들이 규정되어야 하고, 문화란 개성의 완성과 경제적·사회적 발전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전제가 된다.

문화가 經濟的·社會的 發展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던 문화가 활용 가능한 생산 수단이나 인간 자신에 대해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것은 물질적 복지에서의 모든 개선이 문화를 진흥시킨다는 생각과도 상통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선이 인간을 물질적 강제들에 의한 노역으로부터 해방하고, 그에게 정신 활동들을 위한 여가를 제공하기

1) UNESCO, Cultural Policy: a preliminary study(UNESCO, 1969).

때문이다. 경제적 진보의 행진은 문화적 영역 속에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문화적 활동은 또한 경제적 생활을 자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科學을 문화 속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文化가 과학과 기술공학의 영향 아래 진전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단순한 문자 해독의 차원을 넘어선 문맹 퇴치 프로그램들과 문화 발전이 불가분의 전체를 형성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을 기해 비로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미 1940년대로부터, 특히 1960년으로부터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부터 구별되는 문화 업무 담당 부처들이 수립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한편으로는 학동 모집, 소통 매체(communication media), 도시 계획 그리고 생활 수준과 연결된 새로운 현상을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이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각국 정부의 신중한 조치들에 따른 결정을 반영한다. 우리의 헌법도 그러하거나와 주민의 모든 부분들에게 접근 가능한 위대한 文化的 業績들을 이룩하고자 하는 이념을 기본적인 법률들 속에 적어 넣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개인적인 주도에 맡겨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많은 경제적·심리적 곤란들에 의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땅히 그처럼 거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춘 공공 당국들에 의해 진흥되어야 한다.

文化 분야에서 公共當局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각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개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접근 방식들로 추려진다.

① 文化 政策은 전반적인 계획 안에 통합된다.

② 국가는 그것이 국민을 대상으로 떠맡은 역할에 근거하여 文化를 위한 責任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 과제를 언제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는 개인적인 주도를 대체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고려한다.

③ 우리는 국가가 文化機構들을 직접 경영함

에 있어서 發生되는 集中化와 支配的 役割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문화적 행동이 一性으로 위축되고 예술 내의 논쟁적인 요소들이 中性化될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개입을 재정적 지원에 국한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이때 그것이 어떤 조건들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④ 특정한 발전 도상 국가들에서는 문화적 발전이 국가적 정체성의 인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가장 깊은 열망들과 현대 세계의 요구들을 동시에 충족해 줄 독자적인 문화의 성장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이때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개인적 행동은 아직 명백하게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국가의 개입은 創造의 自由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동시에 공공적인 수동성 역시 어떤 값을 치루더라도 회피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문화 정책의 어려움이 있다.

2

문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必要들을 評價하는 일과 그것들을 充足시키기 위해 무엇이 存在하는가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국면들 중 어느 것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사람들은 문화적 활동의 '사실'들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고 공중의 필요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조차 알지 못한다. 실제로 공중의 어떤 성원들이 손에 닿는가? 무엇이 마련되어 있는가? 어떤 유형의 기구들에 의해서? 어떤 시설들을 통해? 어떤 요원들과 함께? 얼마만한 비용으로? 창조, 보급, 훈련, 보존 등의 각각의 부문에서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자발 조직, 개인 등등이 어떤 활동을 얼마만한 비용으로 전개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한다는 것은 文化的 問題들을 客觀的으로 接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의 철학만으로는 행동을 위한 기초가 충분치 않다.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실'들이

정확하게 알려져야 한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문화적 행동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많은 경우 그것은 문화인들에게만 손이 닿는다), 공중의 어느 비율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로 인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는지, 다양한 행동 수단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일러 줄 사실들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전의 실적이 새로운 문제들과 연관해서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문화 정책이란 단순히 전보다 많은 돈을 내어 준다는 식의 후원 체제에 한정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지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실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할 때 더러 경제적 모델이 활용된다. 즉, 경제적 분석에서 사용된 범주들은 문화적 활동을 위해 전용된다. 사실상 수요와 공급의 관념들을 문화적 부면에 적용할 때 우리는 많은 유용한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公衆에 대한 좀더 나은 知識, 즉 공중의 다양성과 공중의 요구들 그리고 기존하는 구조들의 좀더 치밀한 분석을 가능케 해 준다. 생산, 보급 그리고 소비의 범주들이 적용될 경우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후에 우리가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하여 대학교육의 문제를 살필 경우에도 이러한 범주들은 아주 유용하다. 예컨대 인력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생산과 관련하여 예술가 및 예술가 지망생을 위한 정책을 살필 수 있고, 보급과 관련하여 예술 행정 요원 내지 문화 촉매 요원을 위한 정책을 살필 수 있다. 나아가 소비와 관련하여 예술 감상 능력과 문화 활동에의 참여를 위한 정책을 살필 수 있다. 즉 이로써 공공 당국들이 최선의 효과를 산출해 내게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요점들이 좀더 분명하게 부각된다. 나아가 그것은 문화적 발전의 데이터들을 경제적·사회적 및 예술적 발전의 데이터들과 결합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과 정신적 주장들이라는 관념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일 역시 필요하다.

우리가 문화 발전을 논의함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문화적 욕구(demand)와 문화적 필요(need)를 구분하는 일이다. 文化的 必要는 욕구로서 표현되지 않은 채 잠재적 상태로만 남

아 있게 될 수도 있다. 문화적 필요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것들은 예컨대 두 사회 또는 두 집단의 문화적 모델간의 차이와 같은 특정한 데이터로 기초로 활용하는 사회학적 접근에 의해서 발견된다. 이때 우리는 바람직하고 가능한 목적들에 유념해야 한다.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알고 있는 것만을 욕망한다. 사람들의 문화적 필요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인식된 문화적 사실들 또는 혁신들과 접촉하도록 해주어야 하며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새로운 또는 다른 문화 형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은 그것들을 좀더 낮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그것들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경우에 중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행동 사례로서 우리는 日本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예술 극장 중 하나가 농촌 지역을 순회하고자 했을 때 공연될 만한 희곡들을 선택하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 대상이 된 모든 행정 당국들은 만장일치로 현대 작품들을 선호한다는 응답을 보내왔다. 전통적인 '노'나 '분라꾸'(인형극) 작품들은 리듬이 너무 느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하나의 실험으로서 특정한 장소들에서 전통극을 상연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그것들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청소년들의 필요를 자극하여 욕구를 창출해낸 셈이다.

문화적 필요와 관련하여 살펴 보아야 할 사항들 중에는 장기 계획의 발전이 들어 있다. 오늘날에는 문화적 필요들이 이전에 비해 좀더 빠르게 진전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필요들이 나타나고 공중의 취미가 변화한다. 예컨대 T.V. 수상기가 대폭 보급되자,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걸쳐 영화 관람객 수가 50 내지 70% 하락했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므로 너무나 협소해질 수 있을 틀의 선택은 기피되어야 한다. 그리고 급속하게 진전하는 문화적 장면의 요구들에다 제한된 자원들을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4년에서 5년 정도의 단기 계획으로 제한하는 것을 선호했던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단기 계획은 정기적인 평가들과 강령으로부터 결론들을 끌어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장기 계획은 또 그것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문화 발전 10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장기 프로그램들의 확립과 관계된 조직에는 행정과 문화계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경제계 인사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미래전략적 조직들은 국가적 경향들(인구, 경제적·교육적·기술공학적 계획들)과 관계된 장기 계획들을 연구하고, 그러한 배경에서 문화적 발전의 가능한 추세를 자리잡아 보고자 한다.

장기 경제 발전 계획과 인구 계획들은 長期文化發展 계획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한다. 예컨대 인구학적 계획에서 제기되는 문화적 문제들 중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가 참조되어야 한다. 하나는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의 文化的關係들이라는 절박한 문제로서 오늘날의 세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들간의 차이는 단순히 연령과 역사적 경험의 배경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의 진보에 힘입어 전반적인 교육 수준에서도 일어난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포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특별히 老人世代들을 위한 문화를 베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경제기획청 종합계획국은 21세기에의 기본 전략²⁾이라는 장기 계획에서 '생활 구조의 전망'이라는 장을 마련하고, 국민 생활을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즉,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1985년 현재 남자는 74.78세, 여자는 80.48세로서 인생 80년이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으나, 2010년에는 남자 77.43세, 여자 83.37세로 세살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終戰 직후인 1947년에는 남자가 60세를 넘어 사는 기간이 평균해서 12.83년이었고, 1985년에는 19.38년으로서 1947년에 비해 7년이나 늘어났으니, 가령 60세에 정년 퇴직한다 해도 20년은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 가야 하게 되어 있

다. 이에 따른 문화적 대응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이미 1984년에 발간된 「일본 21세기의 전망—국토 공간의 새로운 미래상을 추구하여」³⁾라는 제4차 전국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 전망 작업의 중간 보고서는 '문화 지향의 조류'라는 항목을 통해 21세기 문화의 가능성을 지식 문화, 예술 문화, 생활 문화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 있다. 그리하여 ① 지역 문화의 재확인과 진흥, ② 문화의 국제화, ③ 문화의 산업화라는 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1960년대말에 이미 폴란드의 전문가들과 계획가들은 문화 영역에서 미래를 위한 '문화적 모델들'의 발전에 조준하고 있었는데, 이 모델들은 지적인 분석 도구와 아울러 정책적 선택을 결정하는 표준화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그 모델들은 세 가지 가정들을 기초로 해서 그려지고 있었던 바, 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참조할 만하다: ① 한 사회의 문화적 필요들의 전형을 읽어낼 수 있는 일련의 통계들로부터 얻어내는 外挿法(extrapolation); ② 각각의 사회-정치적 체제들에서 유래되는 차이를 염두에 둔 체 시도하는 다른 국가들의 문화적 발전과의 유비; ③ 국민 생활에 기존하는 특정한 구조들과 국면들의 상대적인 안정화 등이다.

우리는 文化的活動들을 制度化하는 일에 함축되어 있는 不利益들을 감안하면서도 이와 같은 모델 설정이 불가피함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생산, 보급(매개), 소비의 범주에 따라 文化藝術 발전을 위한 교육, 특히 大學教育의 役割을 논의할 경우, 이와 같은 작업은 어렵지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3

여기에서 우리는 지면 관계상 藝術的創造와 文化主體 또는 要員들의 訓練에 관해서만 잠시 언급해 보기로 한다. 산업 사회 이전에 예술은

2) 經濟企劃總綜合計劃局編, 21世紀人の基本戰略: 經濟構造調整と日本經濟の展望(東洋經濟新報社, 1987).

3) 국토개발연구원, 21世紀를 향한 社會潮流와 國土의 對應(일본의 경우)(김창현 역, 1989).

주지하다시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예술’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오늘날 藝術的이라고 記述되는 대상들은 일상 생활의 필수품들로서 사용되었다. 춤과 노래들은 美的 선취물에 의해 촉발되지 않았다. 부유한 자를 위한 문화와 가난한 자를 위한 문화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문화는 불가분이었고, 종족의 공유 재산이었다. 서양 문명도 비슷한 경로를 밟아 왔다고 하겠으니, 예컨대 중세의 성당 건축의 네가들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들의 작품은 사회적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선택된 少數를 위한 藝術’이라는 생각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 여론이다. 文化는 사람들로부터 태어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良心이라는 깊은 샘에 의해 길러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문화를 위해 우리는 그것의 탄생, 성장, 그리고 후속적인 발전의 비결들을 찾아야 한다. ‘傳統藝術’들은 가난한 친족 관계들 또는 그 산물들이 박물관들 속에 파묻히거나 관광객들을 위해 商業化되어야 하는 副次的인 藝術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발전 도상 국가들은 그들의 民族文化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이 널리 알려지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인류의 문화 유산을 계승하여 오늘날의 세계 속에 자리잡게 하고, 예술적인 관점으로부터 그들 시대에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새로운 창조들에 의해 보편적인 유산을 풍부하게 만드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른바 無形文化財가 有形文化財 못지않게 중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구전으로 전해오는 노래들을 위우고 있는 귀한 人間文化財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그것들이 수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전작되어야 한다. 또한 傳統文化에 기반을 두면서도 살아 있는 祝祭들이 되살려져야 했고, 특히 방송과 교육을 통해 傳統音樂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의 대중 매체가 전통 예술들의 부환에서 유용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깊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대중 매체가 단순히 전

통 예술들의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0 세기에 들어서서 영화에 의해 만들어진 진정한 걸작들이 영화를 예술로 끌어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과 텔레비전에서 실험들과 연구 결과들이 기대되고 있다. 말하자면 대중 매체, 그중에서도 T.V.는 하나의 문화 매체로서 다른 예술들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자체로서도 독특한 예술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公演 예술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전통적인 구비 문화로부터 새로운 구비 문화로의 직접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때의 과제는 물론 앞서 말했듯이 그 자체의 고유한 표현 형식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오로지 이런 방법으로만 현재 文明的 腐敗를 위협하는 대중 매체물 소독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많은 나라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환경들을 개선하고 일상 생활의 文化的 內容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상기될 만하다. 이는 우리를 卽時的 核心에로 옮겨 놓는다. 즉, 그것은 日常 생활에서의 美學的 要素를 말한다. 이는 건축, 도시 계획 그리고 산업 디자인 모두가 그 안에 포괄되는 문제이다. 우리의 환경들 그리고 일상적 대상물들은 단순히 기능적이어서는 안 된다. 形式美와 有用性은 불가분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른바 商品美學을 단순하게 조장해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자칫 인류에게 주어진 制限된 資源을 몇몇 資本家들이나 財閥들의 利潤을 위해 희생 또는 낭비해 버릴 위험에 직면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만 간추려 보아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藝術的 創造를 위한 경제적 지원, 법적 지원, 사회적 지원, 조세 감면, 시상 제도 등을 통한 국가 지원, 공공 건물들의 예술과의 연계, 전시회, 연극·무용·음악 작품들의 공연, 예술 작품들의 대여, 실험, 예술가 연금 제도, 창조적 예술가들 간의 접촉과 이러한 예술가들과 공중의 접촉을 위한 실험적 스튜디오, 합리적 정책 운동을 위한 장치, 회사들에 의

한 후원, 노동조합에 의한 후원 그리고 제단들의 참여 등등이 있다.

이밖에도 뜻만 있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우리가 文化的 발전을 全般的 發展의 일환으로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구체적인 제안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균형에 맞지 않는 일이므로 大學教育과 연관하여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의 대강을 그려보도록 한다.

· 專門的인 藝術訓練

藝術教育은 그 배후에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사회적 적응의 문제들을 노정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미술·음악 아카데미, 그리고 그 비슷한 기관들을 비롯한 전문화된 기구들에서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고용 문제들을 불러 일으켰다. 오점은 需要와 供給 사이를 均衡잡는 것이다. 예컨대 시각 예술과 같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판로들을 제공하는 부면들에서 어떻게 하면 예술가들의 과잉이 방지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응용 미술과 관계된 기구들을 진흥시키는 것인데, 응용 미술에 대해서는 산업적 욕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과 연관해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중기적 해결 방안은 아마추어들의 훈련과 전문가들의 훈련을 좀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훈련 시설들의 제조적일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공연 예술들(연극,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에 종사할 전문가들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 기관들의 마련에 특별히 유의하고 있다.

기술적 매체, 즉 사진 설비, 영화 설비, 녹음과 영상 설비 등의 발달과 그것들의 대량 생산이 공중의 대부분으로 하여금 그것들에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예술적 재능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과 아마추어 간의 구별이 점차 사라져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의 보충은 점점 넓어지는 여러 영역에서 계속된다.

· 藝術行政吏員들의 訓練

문화 확산의 전통적 수단인 기능 변화와 새로운 기구들, 즉 대중 배제, 성인 교육 운동, 사회 및 문화적 시설들의 출현이 그와 더불어 모든 나라들에서 그 기관들을 운영하는 문제들과 모든 차원에서 인력의 문제들을 가져왔다. 예술 행정가, 성인 교육 조직가, 문화 공간들의 책임자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정규적이고 조직화된 문화적 행동은 아주 새로운 무엇이다. 그리고 그밖의 부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유능한 행정가들을 요청한다. 비슷하게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극장 등등의 규모가 큰 私的 기구들에서도 행정적 작업이 이제까지 행했던 아마추어리즘을 배제해야 할 정도로 복잡해졌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오늘날 시행착오를 기초로 해서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행정 전문 과정을 이수한 젊은이들을 위해 문화 업무들에 대한 훈련 기회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화가, 작가 등등에게 행정 과목들에 대한 훈련 기회를 마련하든지 하는 방법들이 선호된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능력이나 성향이 전혀 없는 예술가들이나, 예술가들 또는 문화적 활동들을 진흥하는 사람들이 당면하는 특수한 문제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의해 저절러진 수 많은 파오들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에서는 현재 예술 행정 요원을 위한 교육⁴⁾이 대학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해서 문화 촉매 운동 요원의 교육⁵⁾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시청각 기술 요원들의 훈련,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경관과 기념물들의 보호를 위한 기술 요원들의 훈련, 박물관 전문가들의 훈련, 도서관 사서들의 훈련을 비롯한 문화 관련 인력들의 교육이 대학 내지 전문대학 수준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⁶⁾

4) 정홍익·김수일, 문화예술 행정 요원의 양성 및 확보 방안(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5) 김기석, 문화 촉매자 훈련교육 과정 개발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1987), 김문환·이중환, 문화촉매운동론(서울, 현암사, 1987).

6) 박종국, 문화적중 개발과 직업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8).

4

우리는 이상으로 文化藝術 발전을 특히 長期 계획과 관련하여 이해해 보면서 대학 수준에서 있음직한 인력 개발의 문제의 윤곽을 그려보았다. 이로써 그러한 文化政策의 수립·실천에는 문화적 행동의 동요라든지, 행정적 및 재정적 구조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의 해

결은 이제까지의 좁은 의미의 예술교육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은연중에 강조되었다. 줄여 말한다면, 文化概念 자체의 擴大가 요청되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실기교육만이 예술교육의 전부인 양 오해되는 한국 大學教育의 現實은 시급히 改革되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작업을 위한 하나의 基礎的인 發題에 불과하다. *